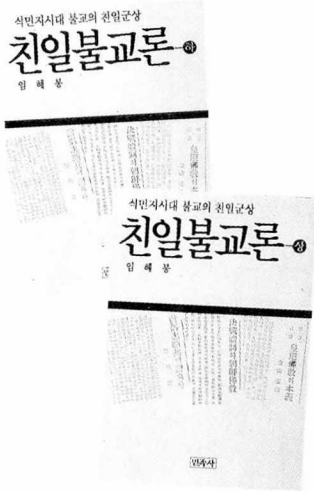


# 스님이 밝혀낸 불교계 친일의 진상

임혜봉 지음 「친일불교론」



명암대비를 이룬다.

연대기적 서술방식의 「친일불교론」은 당시의 신문·잡지 등 관련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얻어진 물증을 가지고 불교계인사들의 친일행적을 낱알이 추적·고발한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사의 공식적인 창씨개명 제1호인 李東仁(淺野東仁), 친일승려 제1호인 김철주 이후 친일군상의 전모를 들추어낸다. 1911년 총독부가 「사찰령」을 통해 조선의 30本寺와 末寺의 주지임명권을 쥐는 등 구조적 장악과정도 밀도있게 서술된다. 또한 많은 승려들이 코뎀은 돈까지 긁어모아 「탁발보국」을 했고, 군용기「조선불교호」를 5대나 헌납했음도 밝혀내고 있다.

많은 친일불교인들이 그러나 해방후 독립유공자로 둔갑했다는 '상식' 또한 저자 임혜봉 스님은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시켜준다. 예컨대 이종욱 '스님'은 국회의원과 동국대이사장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친일 學僧 권상노 역시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권력의 자장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친일불교인들이 해방 이후에도 한국불교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출판사측은 전한다. 독자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저자에게 건네준 민족사 대표 윤재승씨에 의하면, 지난 92년 7월 「친일불교론」을 출판하겠다는 '출판예고'를 했다가 해당인사들의 후손과 제자들의 극언성 항의로 인해 이제가 출간됐다는 것.

민족사/A5신/각 324면/각 6000원

# 처음으로 완역된 중국사대기서의 하나

청년사 펴냄 「금병매」 전6권



극약의 '劇' 자는 연극의 '극' 자와 같다. 연극에 왜 '칼'이 들어가는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것들은 중독성이 강해 기어코 몸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이 다음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회에서.”

중국의 사대기서의 하나로 꼽히는 소소생의 「금병매」는 모두 100회로 이루어진 「章回소설」인데, 마지막회를 제외한 각 회는 그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다음 회를 보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독자를 재미 속으로 빠져들게 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 터이다. 페이지마다 독약을 문혀놓는다면, 침을 문혀가며 책장을 넘기는 버릇이 있는 이라면 틀림없이 중독사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실제로 「금병매」는 “호색한 상급관리에게 아내를 빼앗긴 하급관리가 복수심에서 지어낸

뒤 페이지마다 독약을 발라 침을 문혀가며 책장을 넘기는 버릇이 있던 그 상급관리가 죽게 꾸몄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다.

그 「금병매」의 '무삭제 완역본'이 청년사에서 전6권으로 출간됐다. 저본으로는 최초로 나온(1617년) 무삭제 완본을 그대로 수록한 홍콩 태평서국 간 「全本 금병매사화」본을 택하고, 중국에서도 오랜 동안 금서로 묶였다가 지난 85년에 “문학, 사학, 민속학과 언어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북경 인민문학출판사에서 1만 부 한정본으로 펴낸 「금병매사화」를 참조했다고 역자 박수진·박정양씨는 ‘책을 내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 「금병매」가 소개된 것은 조선 광해군 시절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誨淫之書로 배척돼 번역본은 없었다. 해방후에 나온 것들은 모두 抄譯, 重譯, 評譯본들이며, 게다가 노골적인 성애묘사 부분은 삭제되어 흥미의 차원이건 학술적 차원이건 그 가치가 온전히 평가받기에는 크게 미흡했었다.

특히 이 완역본에는 「금병매」 연구가인 원광대 중문과 강태권 교수의 ‘해설’을 수록, 독한 외설 속에 감추어진 「금병매」의 문학사적 의미를 살피고 있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이해를 돕는다. 「금병매」는 중국소설사상 최초의 사회장편소설이며, 개인 창작 장편소설 중에서 가장 빠른 작품으로 ‘명대사회사’ 내지 ‘사회풍속사’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홍루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紅學」에 버금가는 「금병매」의 “金學”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고 강교수는 말한다.

청년사/A5신/각 400면 내외/각 5000원

# 스키장 살인사건

이 땅 최고의 추리작가 정건섭이 '93 여름을 열어 붙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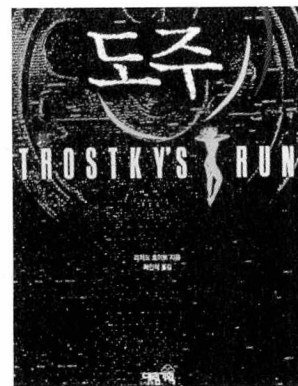


눈 덮인 스키장에서 발생한 충격의 살인사건!

심장까지 얼어붙는 공포의 미스터리!  
위기의 중년부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미모의 20대 여인 채은경의 욕망!!

질투와 욕망은 끝내 파멸을 불러오고...

신국판/313쪽/값 5,000원



리처드 호이트 지음/최인석 옮김

지구 평화의 최후의 보루는 파멸, 그것이였다.  
장미빛 숨결로 내려앉은 백악관의 위기.

— 이 소설을 당신의 도서목록 최고의 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 뉴욕타임즈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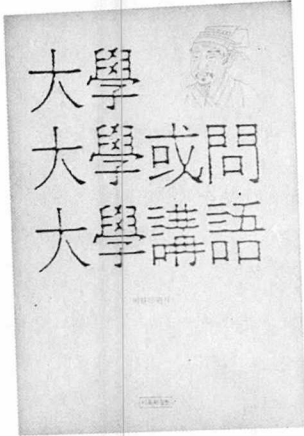
신국판/394쪽/5,800원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TEL. 268-4902. FAX. 277-6946

# 동양고전 '대학'의 총괄적 주석서

박완식 엮음 「大學·大學或問·大學講語」



서양의 지성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석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만, 유학사는 특히 그러했다. 유학자는 곧 경전 해석자였고, 그 주석사는 곧 유학사 내지 유학사상사의 '엑시스'였다. 사단칠정론 외에 현토의 문제가 조선조의 일대공안이었다. 토씨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론의 차이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현격한 것이었다.

현재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박완식씨(42)가 「大學」의 주석, 주희의 「大學或問」, 明나라 유학자와 국내학자간에 「대학」의 해석을 놓고 토론한 「大學講語」의 번역을 한데 묶은 「大學·大學或問·大學講語」는 「대학」에 관한 총괄적인 주석사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四書에 관한 주석서라 할 만한 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朴氏의

말을 빌자면, 이 방면에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어보이는 노작이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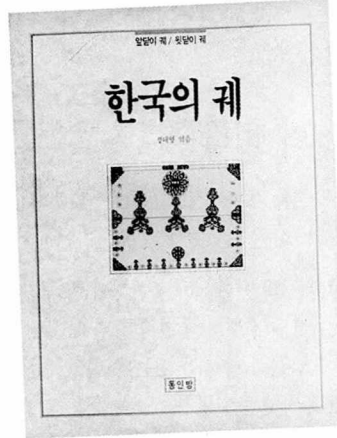
편저자는 「대학」부분에서 주희의 註를 기본으로 왕양명의 주석,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주석을 나란히 비교해 주자학과 양명학과 실학이 보인 경전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세계관의 차이를 들추어냈다. 그의 「대학해설」에 의하면, 「대학」을 “孔氏의 遺書” “성인이 저작한 완벽한 책”이라는 반열에 정착시킨 이는 주자였다. 같은 시기의 왕양명 역시 「대학」을 이론전개의 토대로 삼았으나, “마음과 이치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사물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주자에 반대하여 “心即理說”를 내세움으로써 주자학을 반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格物중심의 理學(주자학)과 致知중심의 心學(양명학)이 대치국면을 이루다가, 임진·병자 양란 이후 “실제성 중시의 원시유학정신 회복” 및 “훈고 고증학”의 실학이 등장하여 「대학」의 새로운 주석을 통한 “반성의 자각과 반동의 표현이 분출”되었다.

「대학훈문」은 주자가 “集註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자신의 학설의 원원과 의의를 설명”한 해설조의 책으로, 문답형식의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해롭다. 「대학강어」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을 따라온 송응창과 국내유학자와의 토론을 정리한 것으로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표나게 대비시킨 진귀한 저작물이다. 朱·王의 전혀 다른 입장이 병렬돼 있다는 점, 朝·明의 ‘국제학술대회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이다.

두 책 모두 국내 初譯이다. 이론편/458면 / 468면 / 15000원

# 그림 중심의 전통 목가구 자료집

정대영 펴냄 「한국의 퀘」



우리의 옛가구 중에 퀘(櫃)라고 있었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가구를 통칭하는 것이었다.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 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퀘가 있었지만, 어느새 ‘노스탈자’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속의 물건이 되었다.

그 퀘에 대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이 막연히 새로운 퀘만 보면 실측을 하고 장식을 본뜨느라” 10여년의 세월을 쏟아부은 정대영씨(고미술상 경영)가 책 한권을 펴냈다. 「한국의 퀘」(동인방)가 그것으로 저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관찰해온 전통 퀘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다. 퀘에 대한 개설서도 아니고 이론서는 더욱 아니고 일종의 자료집이므로 이 책은 설명보다는 그림과 장식 문양들로 채워진다. 모두 실물에서 직접 본뜬 것이어서 연구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퀘」에서는 ‘앞단이 퀘’와 ‘윗단이 퀘’를 주로 다룬다. 많은 종류의 퀘가 있지만 위의 두 가지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장식 치장도 다채로워 한국의 퀘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일반적인 통칭인 ‘반단이’나 ‘돈퀴’ 대신 앞부분에서 열리는 ‘앞단이 퀘’와 윗부분에서 열리는 ‘윗단이 퀘’로 명칭을 통일한 것은 그 기능적인 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이 책이 자료집을 표명하고 있을지라도, “외람되나마” 장식 문양에 대한 지방별 분류가 시도됨으로써 한국의 퀘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업적’이기도 할 것이다. 전통가구라는 것이 현대가구와 달라 그 생산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방별 분류 작업 정도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란 평소의 신념 때문에 “주관적 오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함도 불구하고 시도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앞·뒤단이 퀘들의 내부구조, 異型 등에 따라 분류한다거나, 앞단이퀘의 경우는 발(足臺)의 모양에 따라 통발·평발·집계발·쥐발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이 책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퀘 보고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만하다.

저자는 이 책에 소개된 퀘의 대부분은 이미 산일되어 소장처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별 아쉬움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 자료적 가치를 더한다.

동인방/A4변형/490면/20000원

## 세계 미스터리 걸작선 100

추리소설의 흐름이 한눈에 포착된다. 한편을 다 읽어도 출퇴근 시간이 남는다.

코난 도일·스티븐 킹·체스터튼·아가사 크리스티·엘러리 퀸 등 정통 추리에서 서스펜스, 하드보일드, 심층 심리, 정신분석, 사회파에 이르기까지, 미스터리 거장들의 백미가 한자리에 모인 단편 추리소설의 진수성찬.

●정영목·정태원 편역/각권 5,500원



## 세계 러브스토리 걸작선

그 뻔한 사랑 이야기에 지친 분들에게 드리는 애정 영화 뽀짝 만한 러브스토리들! 대담하고 신뜻한 사랑 이야기 열여덟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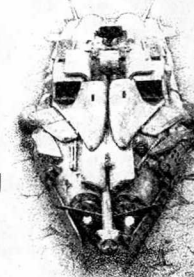
놓쳐 버린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애, 이성으로는 어찌지 못할 처제와의 사랑과 고뇌, 짧은 영문학 교수와 한 여대생의 시한부 동거생활,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연인들! 신선한 발상, 탄력있는 문체, 탄탄한 구성의 단편을 통해 우리 시대의 결혼과 사랑의 의미를 두루 훑어 본다.

●최순희 편역/값 5,000원



## 세계 SF 걸작선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A. 하인라인, 키릴 볼리체프 등 명성으로만 듣던 세계적 SF 작가들의 작품이 총출동했다! 광활히 펼쳐진 우주 공간과 아득한 미래, 가려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기한 사건들, 경이롭게 펼쳐지는 갖가지 미래의 모습을 통해 2,000년대 질감을 피부로 느껴 본다!



●정영목 편역/값 5,500원

서울 중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 1-306호 전화 738-0931~2/팩스 720-3469